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
사회조정실 문화체육정책과

과장 강동진, 사무관 김성열
(044-200-2328, 2330)

이낙연 국무총리,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현장준비상황 최종 점검

- 미디어촌, 메인프레스센터, 올림픽플라자 (개회식장) 등 방문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3일(토) 오후, 미디어촌(강릉), 메인프레스센터(평창), 올림픽플라자(평창)를 방문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.

* (참석)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, 이희범 조직위위원장, 여형구 조직위 사무총장, 김주호 조직위 기획홍보부위원장, 김재열 조직위 국제부위원장,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, 심재국 평창군수, 전정환 정선군수, 송승환 개·폐회식총감독, 양정웅 연출감독 등

○ 이번 방문은 이 총리의 4번째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점검으로, 평창동계올림픽 개회를 6일 앞두고 대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.

* ①평창 올림픽플라자 및 강릉 빙상경기장 방문('17.6.15), ②오죽한옥마을 및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방문('17.9.16), ③평창 올림픽플라자 방문('17.12.12)

□ 이 총리는 먼저 미디어촌을 방문하여, 조직위 숙박국장으로부터 시설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, 미디어워크룸, 객실 등 시설을 직접 점검했습니다.

○ 이어서,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하여, 조직위 미디어운영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, 언론사 사무실, 프레스 워크룸, 기자회견장 등을 살펴봤습니다.

- 이 총리는 “기자들은 올림픽 경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 올림픽과 한국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기사화하는 만큼, 한국만의 핵심적인 문화라든가 재미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여야 한다”고 당부했습니다.

- 이 총리는 밤 8시에 올림픽플라자에서 개최되는 모의 개회식에 참석하여, 개회식 프로그램, 후한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.